

광주 AI 153억·전남 농산물 할인 1700억 정부 추경 반영

시, AI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화폐·공공배달앱 등 소상공인 지원 주력
도, 농업인 경영비 경감·농수산물어가 가계 안정 등 경제회복 총력 대응

정부의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광주·전남 주요 사업예산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정부추경안에 인공지능(AI) 전략사업 예산 153억원이 최종 반영됐고, 전남도는 핵심 사업에 2400억원 가량이 편성됐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지원' 등 3대 목적에 따라 편성됐다. 이에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사업과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등의 반영에 주력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사업은 '지역사업'이라는 이유로 25억원 수준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광주시는 양부남·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강기정 시장이 '여의도 집무실'을 가동하며 직접 챙기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 총 15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회 예산 심의 초기부터 인공지능산업실장과 국비전략팀을 서울에 상주시켜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한 결과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컴퓨팅자원(GPU) 지원사업 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구액(670억원)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아쉽지만, 정부의 '지역사업 전면 배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AI 예산과 함께 광주·대구 등 4개 광역시가 요청한 '도시철도 통합무선망(LTE-R)철도 구축사업비' 178억원 중 광주도시철도 통합망으로는 1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관련 시설은 오는 2028년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VHF) 사용이 종료된다. 국가재난 안전통신망과 연계해야 하고 미구축시 철도안전법상 해당 열차 운행이 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예산(650억원)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중 154억원(지역화폐 138억원, 공공배달앱 16억원)이 지역에 할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수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1700억원을 비롯해 도내 연관사업 7곳에 239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남도가 목표로 했던 10개 사업, 555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 기조가 지역사업을 배제한 만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산 중 전남도 수혜 가능성이 큰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우선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으로 1700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은 전국 공통으로 쓰일 예정이지만, 전남의 농수축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만큼, 농수산어가 가계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으로 55억원 규모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과 궤를 같이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으로는 260억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또 지역 현안사업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대응 및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무안·여수 공항 안전시설 예산으로 35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둔덕계량 설계와 조류감시레이더 설치, 기타시설 개선 등이 포함됐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위 기지역 고용 총력 대응'(50억원)도 포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제2차 추경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촌들녘 분주한 영농 준비 6일 나주시 금천면의 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전남도, 재생에너지 신시장 인도네시아 공략 나섰다

국제 태양광 및 광전지 전시회 참가...5만 달러 수출 협약 체결

전남도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5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생에너지 신시장 개척에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와 '2025 에너지 특화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을 공동 운영, 동남아 최대 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인도네시아 국제 태양광 및 광전지 전시회(Solartech Indonesia 2025)'에 참가했다. 전시회에는 전남 지역 10개 에너지기업이 참여해 118개 현지 바이어와 172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시회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수출 협약을 맺었고, 기술협력도 제안받았다. 국영전력공사(PLN) 납품량 공급 제안과 기술 발표를 요청 받기도 했다. 전남도와 코트라는 항공료, 전시물품 운송, 통역, 차량 등을 지원했으며, 전시회 전일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동향 세미나와 바이어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현지 시장 이해도를 높였다. 인도네시아는 재생에너지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4.68GW의 태양광 발전 용량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2028년 5746MW 규모의 루프탑 태양광 설치도 승인한 만큼 전시회에선 태양광 제조 및 투자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에너지는 전남이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으로,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알리고, 신형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며 "업무협약과 실증사업 성과가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영구불임 대비 난자·정자 냉동 시술비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시가 난임 지원 사업에 나선다. 광주시는 의학적 치료 등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조치다. 항암치료,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등의

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이에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민이다. 생애 한 차례에 한해 본인 부담 시술비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완료 후 대상자가 신청서, 진단서, 시술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쓰세요”

광주시, 돌봄서비스 1자녀 최대 360만원·대체인력비 300만원 지원

광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사업주·종사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광주 소상공인 육아 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후원(사업비 10억원)으로 진행된다. 돌봄서비스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

다. 1자녀 기준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씩 6개월간), 2자녀 기준 최대 540만원(월 90만원 씩 6개월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후 대체인력비를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 최대 3개월간)까지 지원해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주말 근무가 잦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상공인 가정의 현실을 반영,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지원을 받은 한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 대표는 "혼자서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봄 선생님 덕분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은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광주아이카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받고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 **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대학원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